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카툰

글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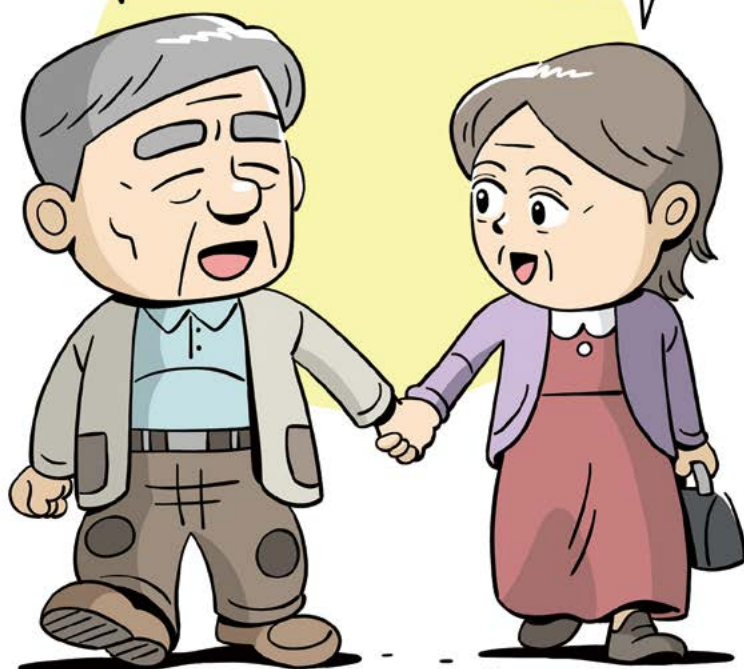
그림 김영화

감수 정현채 (전 서울대의대 교수)

이일학 (연세대의대 교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니 참
즐거분하구먼.

마음이 편하고
숙제를 한 기분이에요.



보건복지부



KoNIBP
한국생명윤리정책원
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사)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Korean Initiative for Advance Directive

여보,
아버님 돌아가실 때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환자실에서
고생고생 하시다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맘이 아파요.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들 마음고생도
심할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친구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써줬대요.

아, 그거
고생 안 하게 안락사
시켜주는 거 말ियो?



아휴,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아직 살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앞당겨 죽게 할 수
없으니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때를 대비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
미리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에게 알려주는 거랍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아, 가족이나
병원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도록
적어두는 것이군요.

그럼 내 것까지
당신이 대신
써주구려.

아니, 무슨 말씀일....
이 서류는 법정 서식이라서
반드시 등록기관에 가서
본인이 직접 써야 된대요!

아, 아이고, 그럼
번거롭지만 직접
가야겠구먼.

가서 상담사한테
자세한 설명도 듣고
같이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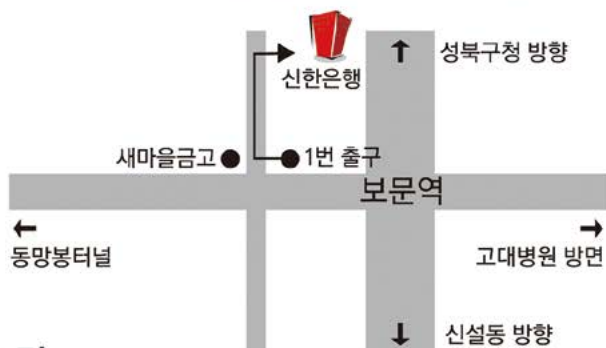
잠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신한은행 3층)



▶오시는 길

지하철 6호선 보문역 1번출구로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꺾어 50보 정도 걸어오시면 신한은행(이룸치과) 3층입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이렇게
2명의 의사가
판단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의 전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라는 말이 참 어렵네요.
내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뜻을 밝히는 거지요?

연명의료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
인가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인
시술입니다.

치료 효과는
없고 단지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하지요.

그럼 연명의료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1. 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었을 때
가슴을 3~5cm까지
강하게 압박하는
마사지를 심폐소생술
이라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때
하는 심폐소생술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연장할 뿐입니다.



2. 인공호흡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을 때,
기도로 튜브를 집어 넣어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3. 혈액 투석

임종을 앞둔 시점의
혈액투석은 오래 하기도
어렵고 이미 건강이 나빠진
상태라서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때 몸 밖에 있는 투석기로
피를 걸러내는 것이
혈액투석입니다.



4.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의학적 기술을
말합니다.



항암제는 원래 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많은 약물입니다.
임종과정에서는 항암제가
도리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그밖에 추가된 연명의료는 수혈, 승압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이 있습니다.

체외 생명유지술이란?

몸밖에서 인공순환장치에 의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기술.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연명요를 임종 단계에서
하지 않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명요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명요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어요.

통증 완화
영양분
물
산소



그렇군요.

그런데
말기상태에서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하지요?



말기 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해서 통증조절과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에 입원
할 수 있나요? 다른 말기
질환은 입원할 수
없나요?

**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호흡기부전
말기 만성 간경화**

네, 현재는
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호흡기부전,
말기 만성 간경화는
가정형호스피스와
자문형호스피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형호스피스



자문형호스피스

모든 대상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
질환이 제한되어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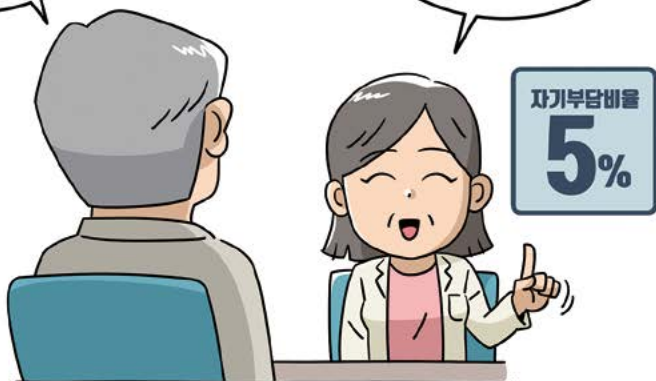


그리고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루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돌봄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요.

환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스피스에
입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말기 진단소견서나 의뢰서,
의무기록사본, 최근 검사결과
등을 준비하여 입원할 병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호스피스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여기서 작성하면 나중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건가요?



국가전산망 →



국가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나중에 의료
기관이 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따라
임종 때 연명의료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고 나서 혹시 생각이
바뀌면 변경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라도 등록기관에
연락해서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해야겠군요.
이렇게 임종 준비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예전엔 장수 비결이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
이었는데 이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회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고 왔단다.

마지막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내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지.



무조건 연명의료에
집착하지않고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문서네요. 저도 써두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미리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두분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주)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정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적는 법정 문서입니다.
- 이 법정서식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등록하게 되며, 국가가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포털(www.LST.go.kr)에 등재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센터 이용안내>

-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월 ~ 금)
- 점심시간: 12시 ~ 1시
- 휴 무: 토, 일, 공휴일
-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21 3층 (신한은행 건물)
- 대표전화: 02-2281-2670
- 방문시 준비물: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
(※ 신분증 미소지시 작성불가)



(사)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Korean Initiative for Advance Directive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0287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신한은행 3층

상담센터 02-2281-2670 사무국 02-2281-2678 이메일 sasilmo@hanmail.net